

제50호(2013.3.12)

##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

박 기 환

1. 농식품 수출 동향과 정책 현황 ..... 3
2. 농식품 수출 및 지원 제도의 당면 문제 ..... 8
3.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12

감 수: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02-3299-4316 jihchoi@krei.re.kr  
내용 문의: 박기환 연구위원 02-3299-4331 kihwa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요약 ◇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56억 달러(수산물 제외)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농업부문이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되는 속에도 수출이 크게 신장된 것은 농가 등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정부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개척 지원,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농식품의 수출 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수출제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우선 수출과정에서는 수출물류비 부담 가중과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출단가의 하락을 들 수 있음. 또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수출제도 운영상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같은 직접보조 형태의 정부지원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체정책 부재, 수출물류비 지원이나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한계, 수출농가의 의욕 고취 및 전략형 해외마케팅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통해 농식품의 수출산업화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주요 수출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즉,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등 지원으로 부실 수출업체의 탈락을 유도해야 하며,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개별 업체가 아닌 연합조직이나 수출협의회 중심으로 지정해야 함. 둘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조건으로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연계로 지역 특산품 수출 촉진을 유도해야 함. 또한 향후 폐지 가능성 높은 지원사업의 대체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직접보조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넷째,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수출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1. 농식품 수출 동향과 정책 현황

### 1.1. 농식품의 주요 품목별·국별 수출 실적

#### □ 농림축산식품 무역수지 적자이나, 수출 신장세 가파르게 진행

-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사상 최대인 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0년 대비 3.7배로 급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액도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2000년 84억 달러에서 2012년 294억 달러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동년 69억 달러에서 238억 달러로 확대

표 1.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입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A)	농식품	1,133	1,899	3,722	4,941	4,785
	축산물	121	173	146	176	395
	임산물	255	150	214	266	465
	계	1,509	2,222	4,082	5,383	5,645
수입 (B)	농식품	5,104	7,397	13,988	18,362	18,717
	축산물	1,676	2,360	3,123	5,071	4,720
	임산물	1,653	2,131	5,219	5,561	6,010
	계	8,433	11,888	22,330	28,994	29,447
무역수지 (A-B)	농식품	-3,971	-5,499	-10,266	-13,421	-13,932
	축산물	-1,555	-2,188	-2,977	-4,895	-4,325
	임산물	-1,398	-1,981	-5,005	-5,294	-5,545
	계	-6,924	-9,668	-18,248	-23,610	-23,802

주: 수산물은 제외한 실적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 농식품 수출의 주도적 역할은 신선채소에서 가공식품으로 변화

- 2012년 농식품 수출 비중은 연초 13.2%, 주류 8.7%, 과자 8.4%, 당류 7.0% 등 가공품 비중이 37.3%로 높은 반면 신선농산물인 채소와 과일의 비중은 각각 6.9%, 4.6%로 축소되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2000년에는 채소가 16.4%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자(13.5%), 주류(12.9%), 면류(10.4%) 등의 순

□ 선정된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집중 지원으로 수출 크게 확대

- 정부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25개 수출전략품목 중<sup>1)</sup>, 14개 농식품의 수출 실적은 2000년 3억 8,577만 달러에서 2012년 10억 7,793만 달러로 2.8배 증가하였음
  -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은 정부의 집중 지원 이후 2011년 대비 2012년 수출이 34.8%, 33.7%, 36.1% 각각 증가

표 2. 정부 선정 수출전략품목의 수출 실적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김치	78,847	92,965	98,360	104,577	106,608
파프리카	-	53,145	58,302	65,866	88,807
딸기	9,531	4,406	26,125	20,606	24,270
토마토	22,949	8,828	6,642	9,652	12,904
사과	2,339	7,798	17,945	8,874	5,906
배	17,104	56,087	54,117	47,268	49,918
단감	3,922	5,590	8,353	9,363	12,739
장미	10,324	10,570	34,235	25,676	27,142
버섯	5,562	2,819	38,885	38,231	33,501
인삼	78,986	82,475	124,204	189,305	150,828
소스류	37,591	81,426	129,705	155,383	171,969
면류	117,716	191,857	240,149	290,256	315,628
막걸리(탁주)	895	2,166	19,095	52,735	36,893
유자차	-	-	32,607	40,442	40,815
계	385,766	600,132	888,724	1,058,234	1,077,928

주: 정부의 25개 수출전략품목 가운데 축산(조제분유), 수산물(넙치, 참치, 전복, 김, 굴, 해삼,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을 제외한 14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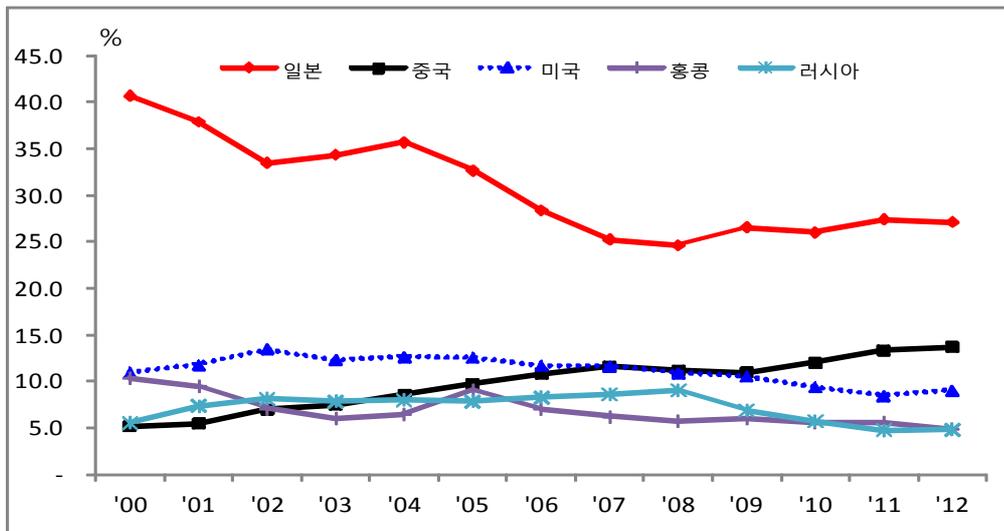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1)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의 스타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2011년 말 총 25개 수출전략품목의 중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음

## □ 농식품 수출시장 일본 의존도 약화되면서 점차 다변화

-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 비중은 2000년 일본 40.7%, 미국 10.9%, 홍콩 10.4% 등의 순이었으나, 2012년에는 일본 27.1%, 중국 13.7%, 미국 9.0% 등으로 변화되었음
  - 대일본 수출비중은 40%대에서 20%대로 크게 하락한 반면, 중국은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제2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상위 5개국 수출비중은 2000년 72.7%에서 2012년 59.4%로 크게 낮아져 수출국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주요 수출국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별 비중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 수출국 다변화 속에서도 중점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 여전히 높아

- 정부 선정 수출전략품목 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김치,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탁주(막걸리)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일본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김치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00년 97.0%에서 2012년 79.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본 중심 구조이며,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막걸리는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
- 농식품의 전체적인 대일본 수출 의존도는 크게 완화되었지만, 수출 전략품목 가운데 일부는 일본 수출비중이 높으므로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

표 3. 정부 선정 수출전략품목 중 일부 농식품의 대일본 수출비중

단위: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김치	97.0	93.0	84.2	83.0	79.3
파프리카	-	100.0	100.0	99.7	99.7
신선토마토	99.2	95.0	95.8	96.7	95.9
장미	99.7	99.7	99.1	97.6	97.9
탁주	84.1	91.8	81.6	91.8	86.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1.2.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의 현황

###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현재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는 크게 해외시장개척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sup>2)</sup>
-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사업에는 수출 정보 인프라 구축, 수출유망 품목 육성, 수출 브랜드 지원, 수출 물류기반 구축 등의 수출성장동력 확충과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지원, 바이어 초청회 개최 등의 해외수출거래선 발굴 사업이 있음

2)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과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은 100% 정부 보조사업이며,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은 융자지원임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와 안전성·검역 등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으로 구분됨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출품목 생산단지 지원과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대부분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주체이며<sup>3)</sup>, 이들 사업은 생산조직, 안전관리, 시장개척, 물류지원, 금융보험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

분 류	세부 사업
▪ 생산조직	원예전문생산단지지원, 수출유망품목 육성, 수출전문인력 육성,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
▪ 안전관리	수출농산물 GAP인증지원,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일본 채소류 ID 관리, 대만 사과 안전성 관리, 러시아 수출업체 관리
▪ 시장개척	해외홍보마케팅 지원, 해외유통업체연계 관측행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바이어 거래알선, 해외aT센터 지사화사업, 고품질 샘플제공비 지원, 수출브랜드 해외상표 등록, 해외인증제도 등록지원, 공동브랜드 휘모리 관리
▪ 물류지원	수출물류지원, 선도유지제이용,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물류활성화, 농식품물류효율화컨설팅
▪ 금융보험	환변동보험 및 농수산물 수출보험,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수출품목 생산단지 지원(시행주체는 농협중앙회)을 제외한 전체 사업의 시행주체임

## 2. 농식품 수출 및 지원 제도의 당면 문제

### 2.1. 수출과정상의 문제점

#### □ 수출물류비 부담 가중과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물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출 농가 수취가격 하락은 물론, 수출업체의 농식품 수출 확대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
- 수출업체 조사결과, 농식품 수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유가와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수출물류비 상승(20.3%)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표 5.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단위: %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	전문적인 수출농가 (제조업체) 부족	고품질 제품 확보 곤란	재배 작기와 소비시기 미일치	까다로운 수출절차	수출물류비 상승	업체 간 과당경쟁	수출국 정보미흡	안정적인 바이어 부족	정부지원 부족	계
비중	13.1	6.9	3.7	3.7	6.6	20.3	15.4	5.4	9.7	15.1	100.0

주: 복수응답 결과

자료: 2012년 수출업체 조사결과

- 물론, 수출물류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재비 등은 상승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향후 WTO 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 또는 철폐에 대비하여 기본물류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표 6. 수출물류비 지원 조건 변화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본물류비 지원수준 (표준물류비 대비)	25	20	15	10	10	1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안내」, 2011

- 농식품 수출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수출업체가 한정된 바이어와 거래함으로써 거래교섭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지원자격을 강화하여 영세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는 탈락을 유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 수출단가의 지속적 하락과 수출물량의 원활한 확보 곤란

- 대표적인 신선채소인 파프리카는 수출업체가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일본 내 한국산 수입단가가 2007년 이후 하락세이며, 장미와 백합도 하락하는 추세임

표 7. 주요 수출품목의 일본 내 한국산 수입단가 추이

단위: 원/kg, 원/본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파프리카	385	335	372	402	337	291	328	332
장미	33	35	26	24	20	25	29	20
백합	137	116	76	67	63	56	71	-

주: 파프리카 수입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값이며, 장미·백합의 수입단가는 수입액을 검역 본수로 나눈 값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일본 농림수산물성 식물방역소

- 수출농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상승하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업체는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4)</sup>
  - 특히, 기상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은 채소와 과일의 수출업체 중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 경험이 있는 업체는 62.5%, 79.5%로 조사되어 (2012년 수출업체 조사결과) 매우 높음
- 농가 입장에서 국내 시세가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 내수로 판매를 전환하여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신뢰저하와 이로 인한 수출단

4)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 수출 약속 불이행이 13.1%로 나타나고 있음(표 5 참조)

---

가 하락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국내 가격 급등 시 농가의 수출판매가격을 일부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

## 2.2.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

### □ 직접보조 형태의 정부지원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체정책 부재

- 수출물류비지원은 농식품 수출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농식품 수출 신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DDA 협상 결과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지원액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이 때문에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가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은 증가하는 추세
  - 따라서 수출물류비 존속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폐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

### □ 대표적인 정부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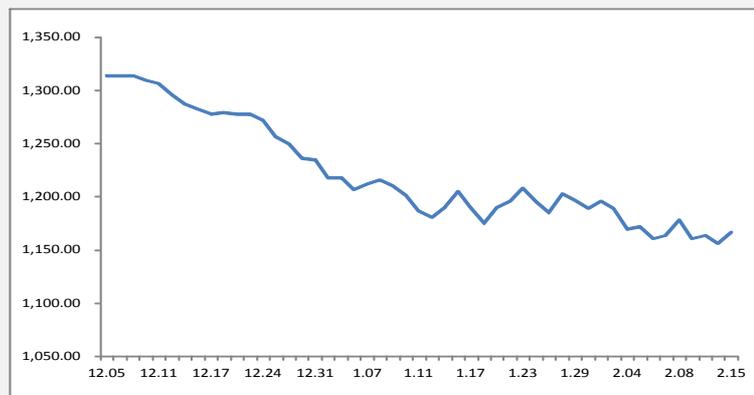
- 수출물류비지원의 증액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비수기와 성수기 수출의 구분 없이 동일한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수출단가 상승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며, 무분별한 업체 난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으나, 선정 업체가 사업의 근본 목적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선도조직 인센티브를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회원사 및 참여 농가 간의 신뢰부족으로 이탈하는 업체도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

## □ 수출농가의 의욕 고취 및 전략형 해외마케팅 지원 부족

- 현재 수출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은 원예전문생산단지지원 정도에 불과하며, 많은 수출농가는 수출보다 내수 판매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청됨
- 농식품 수출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다변화되었음에도 품목에 따라서는 대일본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엔화 변동 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최근 엔화 환율 하락으로 농식품의 일본 수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 최근 엔화 환율 하락과 대일본 농식품 수출 감소 >

- 일본 엔화 환율이 2012년 12월 초 100엔당 1,300원 대에서 2013년 2월 15일 현재 1,167엔으로 급락
- 엔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금년 1월의 대일본 장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8%, 유자차 19.8%, 김치 7.1%, 막걸리 63.1% 감소



자료: 외환은행(매매기준율)

- 그럼에도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많지 않아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정착 시까지 계속 지원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이 요구됨

### 3.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 주요 수출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성과 극대화

-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출실적(단일 품목 기준 25만 달러 이상의 업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위 상품도 수출되는 문제가 발생됨.
  - 이 때문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시기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
- 즉, 수출물류비 지원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수출 성수기에 고품위 농식품 수출 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기에는 축소하도록 함
  - 이 경우 비수기 저품위 농산물 수출로 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를 최소화하여 부실 업체의 탈락을 유도할 수 있으며,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의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조직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지원을 또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보조로 인식하는 업체가 많으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선도조직은 개별업체 중심이 아닌 연합조직이나 수출협의회 중심으로 지정하도록 방식을 개선하고, 추가 확대 선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선정된 선도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 수출선도조직의 조직화 성공 사례 >

- KOPA 연합법인은 파프리카 수출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18개 업체가 연합 출자하여 2012년 설립
  - 공동 물류·공동 원료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자체 재원조성,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바이어 정보공유로 수출교섭력 확보
- (주) K-Flower는 2010년 3개 지역농협과 1개 영농조합법인이 연합하여 설립
  - 2012년 3월: 수출선도조직사업 장미부문 사업자로 지정
  - 2012년 5월: 장미 수출 개시, 장미 이외 품목도 통합 수출

##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예산 확대 및 환율변동 대비 지원 강화

- 정부의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추진은 수출시장 다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해당 세부 사업들의 예산은 일부를 제외하면 소규모이므로 실질적인 다변화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함
  - 특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당장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이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
- 최근 엔화 환율 급락으로 농식품의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확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sup>5)</sup>
  - 정부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가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고 있음

표 8. 정부의 환변동 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지원 내역

	환변동 보험료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선물환 및 범위제한 선물환 가입비	선적 후 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지원비율	선물환 100%, 범위제한 선물환 90%	
지원한도	10백만 원 한도	
지원방법	보험 가입 시 지원(가입 시 자부담분 납부)	
지급제외	한국무역협회 또는 지자체 등에서 보험가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보험가입 이후 가입액 대비 수출실적 미달 시 미달비율에 해당하는 지원액 회수(회수대상액=[1-(수출실적/보험가입액)]×보험료 지원액)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5)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 제도로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임.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은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 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형 상품임

- 수출업체 조사결과(2012년),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의 인지도는 60% 수준인 데 비해 이용도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정부는 환율변동 등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도 가입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필요 시 수출물류비지원 조건으로 가입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연계로 지역특산품 수출 촉진 유도

- 농식품 수출확대는 새로운 수요 개척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이 수출상품화되도록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즉,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수출에 필요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해당 지자체는 수출상품화가 이루어지도록 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수출업체는 국내산 지역 특산품이 수출시장 기호에 맞도록 수출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정부의 수출상품화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정부와 지자체 연계 성공사례 >

- (주)제키스는 제주 감귤 초콜릿, 백년초 초콜릿, 녹차 초콜릿 외 과자류 등을 제조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제주지역 업체로서 77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며, 이 중 수출은 7억 원 정도
  - 저온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감귤에 화이트초콜릿을 코팅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일본에 수출



- 순감귤 화이트 초콜릿은 100% 제주산 감귤을 사용하고 있어 감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특히, 다소 상품성이 낮은 감귤을 구매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감귤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가공업체 성장을 위해 당 회사의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수출상품화지원사업의 대상 업체로도 선정되어 지속적인 수출확대 도모

#### □ 향후 폐지 가능성 높은 지원사업의 대체제도 마련

- 수출물류비 지원의 직접 보조형태의 지원으로서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수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수출물류비지원은 DDA 협상 타결 전까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함<sup>6)</sup>
- 그렇지만 협상 타결 이후 수출물류비 지원의 폐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단, 대체 방안 마련 시에는 물류비 지원처럼 직접 보조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정부 지원을 통한 국내 공동수출물류시설 구축, 주요 수출시장 내 한국산 농식품 공동물류시설 설치 등으로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고, 정부와 항공사·해운업체 간의 협상으로 수출용 농식품에 대한 운임료 할인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 □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 신설

- 수출업체들의 수출 시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수출물량의 지속적 확보 곤란이므로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수출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6)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수출업체 비중은 9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2012년 수출업체 조사결과)

- 
- 보험제도의 가입 업체 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보상지원금)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수출업체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 기금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운영은 보험사(농협중앙회)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의무 가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에 한해 수출물류비 보조가 가능할 것임
  - 단,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정부 보조 필요
-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시장별 수출 성수기가 존재하지만, 이 시기에는 동계작형 난방비 등의 부담으로 국내 재배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수출국가의 식물검역 기준에 맞는 농약이나 천적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농가 부담이 큼
  - 따라서 농가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수출국 성수기나 식물검역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의 수출용 생산자재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

##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 2013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욱,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운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3. 11  
발 행 2013. 3. 12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mailto:munwonsa@hanmail.net)

---

ISBN: 978-89-6013-441-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